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낙관성, 일희망, 부모양육태도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정은선¹, 하정희², 김정수^{3*}

¹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²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³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Calling to Optimism, Work Hope and Supportive Parenting

Eun-Sun Jung¹, Jung-Hee Ha², Jung-Soo Kim^{3*}

¹Division of Liberal Arts and Teaching Profession, Halla University,

²Department of Adolescent Counseling, Hanyang Cyber University,

³Student Counsel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77명의 자료를 SPSS 18.0과 Amos 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은 직접적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희망을 매개로 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명의식에는 일희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및 낙관성의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환경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n calling and the role of optimism, work hope, religion and supportive parenting.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optimism and work hope) and personal environmental variables (religion and supportive parenting) would affect how the path would reach. 277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urveyed. The data was analyzed by AMOS and SP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indicated that supportive parenting and optimism had a direct influence on work hope, and work ho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lling. Religion was not influenced by calling. Second, predictors including work hope, optimism, and supportive parenting accounted for calling well. The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on calling in counseling and education area are discussed.

Key Words : calling, optimism, work hope, supportive parenting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들[5-6]을 통해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명의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사회에서 개인의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기되었고, 자신의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 선택이나 맡고 있는 일에 소명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7].

Dick과 Duffy에 따르면[8], 소명의식(calling)이란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헌신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을 의미한다. 자기

*Corresponding Author : Jung-Soo Kim(Hankuk Univ.of Foreign Studies)

Tel: +82-2-2173-2562 email: miguell@hanmail.net

Received August 27, 2014

Revised October 10,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자신의 직업이 하늘의 소명이라는 직업의식으로서 종교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개인이 일에 대하여 의미와 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9]나 직업에 헌신하며 타인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태도로 본다[10]. 즉 주관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다[11].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 뿐 아니라 대처해야 할 어려운 일들에 당면했을 때에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3]. 소명의식이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는 점에서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로와의 관계[5-6]나 청소년지도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인들을 대상[1,3-4,12]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긍정심리학에서 논의되는 개인의 행복감 혹은 안녕감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9], 정작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탐색된 요인이 대부분 사회학적 배경 요인들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1,3]. 따라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적 연구들을 통해 소명의식에 영향 미치는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특성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낙관성, 일희망을 상정하고, 환경적 특성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종교유무를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이론적 배경

먼저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로 주목한 변인은 낙관성이다. 일반적으로 낙관성이란 미래에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즉,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13-15],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낙관적 설명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17-18] 낙관성과 소명의식과의 관련도 유의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낙관성과 진로관련 연구에서 낙관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19-20]. 또한 낙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확신수준이 높았다[21-22]. 소명의식이 진

로관련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다양한 진로관련변인들과의 관계가 보고되어 온 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낙관성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변인은 일희망이다. 일희망은 Snyder[23]가 말한 희망의 개념을 일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24]. 일과 관련하여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뜻하는 주도성(agency),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경로(pathway), 일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목표(goal)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일희망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조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생들의 소명의식 및 진로태도성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5]. 일희망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에 대해 갖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하면 일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일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안윤정과 서지윤[25]도 일희망과 진로동기 및 진로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일희망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일에 대해 높게 동기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실제로 일희망은 소명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5,25-26].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소명의식과 일희망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둘 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각 변인들 간에 관계가 어떠한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낙관성 및 일희망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측면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7-2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평소에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는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의 양육태도, 지능, 학업성적, 유의미한 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30],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31]. 부모의 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어 진로준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1], 개인의 진로포부와 진로선택에서도 중요한 예언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부모의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양육태도로서의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3].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일반적인 심리적 지지와 기대[34],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가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결과[35]도 보고된바 있다.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희망이 지지와 자율성을 가진 학습환경 및 성취와 관련된 신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3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에서 일희망과 진로발달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7]. 특히 일희망이 진로스트레스의 가족환경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25], 일희망의 하위요인 중 목표가 가족의 기대와 다른 진로설정으로 갖게 되는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이 자신의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돈규[38]는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과 같이 중요한 타인의 지지는 긍정적인 자원이 되고, 이는 자기개념형성에도 도움을 주므로[3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낙관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상정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낙관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 일희망 간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환경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설

시하였다. 설문지는 28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0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277명(남자 126명(45.5%), 여자 151명(55.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8세~33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21.9세(SD=2.27)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부모지지, 낙관성, 일희망, 소명의식척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였으며 검사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설문 실시 전에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 실시 후에 연구 내용과 목적,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2.2 측정도구

2.2.1 소명의식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는 다차원적 소명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Dick, Eldridge와 Steger[40]가 개발하고 Shim[9]이 번안하고 한국어로 타당화한 척도(CVQ-K)를 사용하였다.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문항씩 총 12문항이다.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him과 Yoo[41]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초월적 부름-존재 .83, 목적/의미-존재 .74, 친사회적 지향-존재 .71, 전체 척도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월적 부름-존재 .65, 목적/의미-존재 .81, 친사회적 지향-존재 .65, 전체척도 .82로 나타났다.

2.2.2 낙관성 척도(Optimism Item)

낙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cheier와 Carver[42]가 개발하고 Scheier, Carver와 Bridges[43]가 개정한 삶의 정향 평가지(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LOT-R은 6개의 낙관성 측정문항(긍정형 3문항, 부정형 3문항)과 4개의 fill i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측정변수로 무선향당 하여 이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58, .6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6으로 나타났다.

2.2.3 부모의 지지 척도

부모의 지지는 Schaefer[44]의 CRPBI(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45]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을 Cho[46]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는 양육행동관련지시(10문항), 심리적 통제(8문항) 및 행동적 통제(5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 및 행동적 통제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써 조주연[4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Cronbach' a)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86, .89였다.

2.2.4 일희망 척도(Work Hop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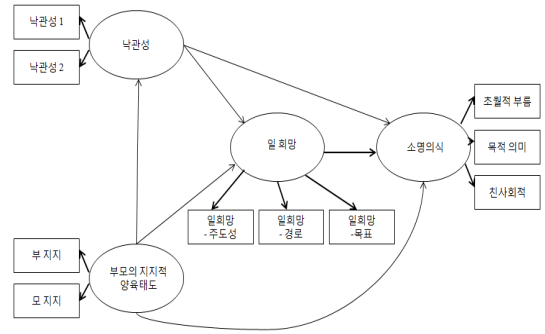
일희망은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동기화된 상태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안윤정과 서지윤[25]이 개발한 일희망 척도(Work Hope Scale: WHS)를 우리말로 변안한 것[5]으로 사용하였다. 일희망에 대한 주도성, 경로, 목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 7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희망이 높음을 뜻한다. 안윤정과 서지윤의 연구[25]에서 보고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93, 주도성 .87, 경로 .68, 목표 .81이었고 박주현과 유성경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93, 주도성 .88, 경로 .73, 목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 a)가 .94, 주도성 .87, 경로 .78, 목표 .85로 나타났다.

2.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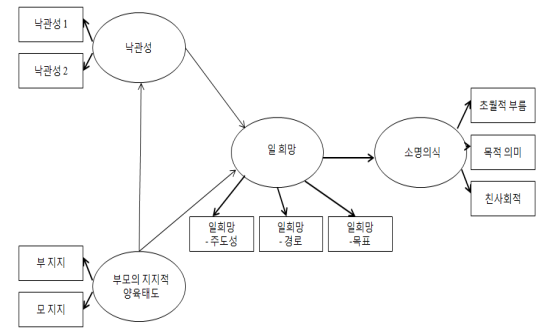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성은 일희망과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이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성은 일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의 경쟁모형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1과 같으나,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이들이 일희망을 매개로 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봄으로서,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환경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tive Model

2.4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인들간의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l등의 권유에 따라[47], 하위차원이 없는 척도에 대하여 각 척도 별로 요인을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록 문항을 묶어 각 문항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χ^2/p 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

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비교적합도 CFI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χ^2 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TLI와 CFI가 .90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48].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낙관성,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 간의 상관 및 기초통계치

낙관성,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낙관성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가운데,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태도보다도 일희망 및 소명의식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희망과 소명의식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서, 일희망이 클수록 소명의식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Regulatory Focus and Variables(n=287)

Variables	parent support		optimism		work hope		Calling and Vocation			
	1	2	3	4	5	6	7	8	9	10
1	-									
2	.50***	-								
3	.27***	.27***	-							
4	.19**	.18**	.48***	-						
5	.26***	.32***	.29***	.30***	-					
6	.25***	.28***	.30***	.25***	.79***	-				
7	.28***	.27***	.25***	.30***	.86***	.82***	-			
8	.17***	.12*	.16**	.24***	.32***	.33***	.36***	-		
9	.13*	.19**	.20**	.23***	.56***	.57***	.61***	.41***	-	
10	.15*	.16**	.11	.16**	.37***	.42***	.42***	.43***	.49***	-
M	2.95	3.27	3.31	3.27	4.81	4.63	4.80	2.11	2.68	2.26
SD	.69	.56	.70	.64	.98	.87	1.06	.63	.69	.62

* $p < .05$, ** $p < .01$, *** $p < .001$
 Note. n=sample size.

1. paternal support, 2. maternal support, 3. optimism 1, 4. optimism 2, 5. Agency, 6. Pathway, 7. Goal, 8. transcendent summons, 9. purpose/meaning, 10. prosocial orientation

3.2 가설모형 검증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의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 즉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49]. 그 결과 $\chi^2(N=278, df=29)$ 은 40.85($p > .05$), CFI는 .97, TLI는 .99, RMSEA는 .0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경로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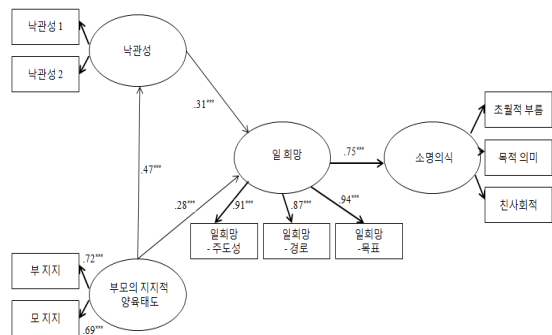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모형 모두 CFI와 TLI 및 RMSEA의 적합도 지수 값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df에 따른 χ^2 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경쟁모형이 더 간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모형에 대해 변수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관련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3과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Table 2] Goodness of Fit Index and Comparison of Models

Variables	χ^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40.845	29	.98	.99	.04
Competitive Model(final Model)	41.742	31	.99	.99	.04



* $p < .05$, ** $p < .01$, *** $p < .001$

[Fig. 3] Final path model with path estimates

[Table 3] Parameter Estimates, Standard Errors and Test Statistics of Hypothesis Model

path between Measured variable	coefficient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 error (S.E)	critical ratio (C.R)
1. pa → op		.65	.47***	.15	4.22
2. pa → work		.52	.28**	.17	3.05
3. op → work		.42	.31***	.13	3.36
3. work → calling		.29	.76***	.04	7.66

* $p < .05$, ** $p < .01$, *** $p < .001$

1.parent support → optimism, 2.parent support → work hope, 3.optimism → work hope, 4.work hope → calling and vocation

그림 3과 표 3을 통해 볼 때,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낙관성 및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47, $p < .001$; .28, $p < .001$), 낙관성은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p < .001$). 아울러 일희망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76, $p < .001$). 즉,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기도 하지만, 낙관성을 통해 일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치기도 하며, 이러한 일희망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Criterion Variables

Criterion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 ²
optimism	parent support	.47		.47	8.6
work hope	parent support	.28	.15	.43	21.2
	optimism	.31		.31	
Calling and Vocation	parent support		.32	.32	35.9
	optimism		.24	.24	
	work hope	.76		.76	

다음으로 기준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낙관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은 8.6%였으며 일희망에 대한 부모의 지지태도, 낙관성의 설명량은 21.2%, 소명의식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의 설명량은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일희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

고 낙관성도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낙관성과 일희망, 환경적 특성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상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낙관성, 일희망,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낙관성 및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낙관성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일희망을 통해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설명량은 8.6%였으며 일희망에 대한 부모의 지지태도, 낙관성의 설명량은 21.2%, 소명의식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의 설명량은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일희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낙관성도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일희망이었고, 낙관성 및 부모양육태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희망은 Snyder[23]의 희망이론을 일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희망은 일에 대한 태도로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일희망이 뒷받침된다면 자신의 일에서 목적과 가치를 찾아가며 주어진 일에 충만감을 느끼며 기꺼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낙관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일희망을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태도로서 일희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낙관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낙관적인 태도와 일에 대한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소명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상담 및 교육영역에서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입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지적일수록 자녀의 낙관성은 높아지고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일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성격형성에서 긍정적인 변인으로서 낙관성을 높이도록 돕고, 이는 다시 일에 대한 동기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소명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희망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희망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상담자 및 교사와 부모는 지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 또는 자녀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이 필요하겠다. 이미 낙관성은 진로와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17-18], 본 연구를 통해 소명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소명의식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을 들 수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의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소명의식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소명의식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였으나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고, 긍정심리학이나 진로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희망이 매개하는 경로임을 제안하였으나 박주현과 유성경[5]의 연구에서는 소명이 일희망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두 변인의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이들 간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식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 검증을 통해 어떠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나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소명의식에 대해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1-3], 소명의식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소명의식이 진로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소명의식에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s

- [1] D. W. Kim, N. S. Cho.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Calling and Ethics of the Medical Social Worker". *Korean 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 Review*, 11(2), 221-244. 2012.
- [2] E. K. Le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Youth Work as a Vocation and Attendant Levels of Job Satisfa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2(1), 115-140. 2011.
- [3] J. Y. Jang, J. Y. Lee. "The Relation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6(1), 123-146. 2014. a.
- [4] J. Y. Jang, J.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1), 259-278. 2014. b
DOI: <http://dx.doi.org/10.15703/kjc.15.1.201402.259>
- [5] J. H. Park, S. K. Yoo.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543-560. 2012.
DOI: <http://dx.doi.org/10.15703/kjc.13.2.201204.543>
- [6] N. M. Yang, E. K. Lea. "Mediational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4(1), 51-68. 2012.
- [7] Y. J. Shi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209-226.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1.201302.209>
- [8] Dik, B. J. & Duffy, R. D.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y*, 37, 424-450, 2009.
DOI: <http://dx.doi.org/10.1177/0011000008316430>
- [9] Y. R. Shim.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with a Korean College Student Sample".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1.
- [10] E. J. Jeong.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Caregivers Participated in Long Term Care Insurance Test Service: Focused on Belief in Public Service and Sense of the Calling to the Field".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7.
- [11]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155-176.
DOI: <http://dx.doi.org/10.1002/job.301>
- [12] K. O. Seol, J. I. Lim. "Collective Self-Esteem, Calling and Burnout among Youth Compan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5(2), 187-201. 2013.
- [13] J. S. Kim, H. I. Jo.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and Benefit-Fin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Adverse Ev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2(3), 797-820. 2010.
- [14] H. S. Shin. "Testing the Mediator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in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Internalizing Problem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485-503. 2006.
- [15]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DOI: <http://dx.doi.org/10.1007/BF01173489>
- [17] H. K. Kwon, H. K. Lee. "The Effect of Optimism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Mediated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4), 723-741. 2004.
- [18] S. H. Lee, E. Y. Son.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Scale and Career Adaptability: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4), 2525-2544.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4.201308.2525>
- [19] H. K. Kwon. "The Effect of Optimism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Mediated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th-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4.
- [20] H. J. Jin.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issertation of Doctor of Philosophy. 2011.
- [21] S. R. Kim, J. C. Le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2), 393-407. 2007.
- [22] E. G. Seo.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Optimism on Level of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7.
- [23]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I1304_01
- [24] Juntunen, C. L., & Wettersten, K. B. (2006). Work Hop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94-106.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3.1.94>
- [25] Y. J. An, J. Y. Seo. "The Effects of Work Hope and Career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55-81. 2013.
- [26] Duffy, R. D., Allan, B. A., & Dik, B. J. (2011).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 Examin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74-80.
DOI: <http://dx.doi.org/10.1016/j.jvb.2010.11.001>
- [27]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 493-568.
DOI: <http://dx.doi.org/10.1177/001100004265660>
- [28]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2, 373-386.
DOI: <http://dx.doi.org/10.1007/BF02088721>
- [29] Y. K. Au. "A Multilevel Analysis Adolescents' Changes on Job Aspiration Level".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41, 275-298. 2011.
- [30] H. S. Kim, Y. C. Roh. "Peer and Teacher Support and Optimism as a Mediator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Career Aspir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2817-2832.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5.201310.2817>
- [31]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8.1.39>
- [32]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4-27.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9.1.14>
- [33] Y. J. Woo, H. Y. Hong.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Aspi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Late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3(1), 31-53. 2011.
- [34]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98-217.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7313206>
- [35] Y. J. Gong. "The Influences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3), 223-242. 2008.
- [36] Kenny, M. E., Walsh-Blair, L. Y., Blustein, D. L., Bempechat, J. & Seltzer, J. (2010).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urban adolescents: Work hope, autonomy, support and achievement-related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205-212.
DOI: <http://dx.doi.org/10.1016/j.jvb.2010.02.005>
- [37] Yakushko, O. & Sokolova, O. (2010). Work Hope and Influence of the Career Development Among Ukrain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4), 310-323.
DOI: <http://dx.doi.org/10.1177/0894845309345670>
- [38] D. K. Ya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s , Optimism , and Hass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8(1), 1-23. 2001.
- [39] Felner, R.,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1), 14-27.
DOI: http://dx.doi.org/10.1007/978-1-4419-8646-7_9
- [40]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August).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41] Y. R. Shim, S. K. Y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K)".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4(4), 847-872. 2012.
- [42]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DOI: <http://dx.doi.org/10.1037/0278-6133.4.3.219>
- [43]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7.6.1063>
- [44]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DOI: <http://dx.doi.org/10.1037/h0022702>
- [45]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 [46] J. Y. Cho.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Effects of Mediating".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0.
- [47]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5.1.18>

- [48] MacCallum, R., Widaman, K., Preacher, K., & Hongsehee.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 611-637. 2001.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06MBR3604_06

- [49] H. S. Lee, J. H. L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nd Amos 6.0. Bobmunsa. 2007.

DOI: <http://dx.doi.org/10.1002/9780470024737>

정은선(Eun-Sun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상담자 교육, 영성, 삶의 의미, 학습상담

하정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적응, 소수자특성

김정수(Jung-Soo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낙관성,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대학생적응